

“간성에 군인아파트 300세대 신축”

육군 제22사단 인사처 관계자 밝혀 ... 30년된 기존 아파트 260세대를 40세대 늘려 이전

주민들 “고성군 적극 협조 나서야”

고성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군인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최근 육군 제22사단에서 300세대 규모의 군인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제22사단 인사처 복지담당관은 지난 15일 “지어진지 30년 가까이 된 간성지역 군인아파트가 낡고 생활하는데 불편해 새로운 아파트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고성군 건축 관계자와 구두상으로 논의했으며, 조만간 군청을 방문해 공문을 접수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단은 간성지역에 위치한 7개동 260세대의 군인아파트를 종전보다 40세대 늘려 총 300세대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고성군이 간성지역에 군유지 등 부지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군인아파트가 건립돼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군인아파트 부지는 고성군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83년부터 2개 동씩 1989년까지 연차적으로 7개동 260세대가 지어진 간성 군인아파트는 옥상 방수가 제대로 안돼 물이 새고, 벽에 곰이 가고, 타일이 일어나고, 배수구가 막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면적이 15평형으로 작아 자녀가 있는 군인가족들은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15일 현장 확인 결과 아파트 옥상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판으로 감싸 놓고 있었으며, 일부 동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스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단 공병대에서 임시로 안전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군인아파트 신축 움직임에 대



간성 군인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 가까이 돼 노후되자 22사단이 신축 아파트를 건립해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군인아파트 현장 모습. 사단 공병대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낙하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임시로 안전막을 설치했다.

해 고성군 관계자는 “군부대의 군인아파트 신축 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부대에서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적당한 부지가 어딘지 물색

해 군인아파트 건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간성읍을 비롯한 고성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

면서, 고성군이 군부대의 아파트 신축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광호 기자

“통학차량 운전자가 직접 승하차 확인해야”

고성지역 기관·단체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전개

새학기를 앞두고 고성군과 지역 기관·사회단체들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성군과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경찰서, 간성어린이집, 녹색어머니회, 고성군 모범운전자연합회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간성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지킴이 호소문을 낭독한 후 간성을 상리~신안리까지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직접 확인,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전단지 배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29일까지 관내 어린이통학차량 운행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광각 후사경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운전자가 직접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및 계도에 나선다.

원광연 기자



고성지역 기관·단체들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간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킴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영일 회장 재임

고성군변영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14일 오전 11시 고성군청에서 열린 고성군변영회 정기총회에서 이영일 변영회장이 2년 임기의 회장에 재임됐다.

이영일 회장은 “저를 다시 뽑아준 각 읍면 변영회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군 통합 문제 등 여러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역발전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